

4/17/16

설교 제목: 에덴 동산의 회복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2:8-15, 요한 계시록 22:1-11

- (창 2: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창 2:9)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절관주** 겔 31:8
-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절관주** 시 46:4
-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절관주** 단 10:4
- (창 2: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절관주** 창 2:10, 겔 47:1
-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절관주** 겔 47:12
-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 (계 22: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절관주** 계 19:10

(계 22: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절관주** 계 1:1

(계 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절관주** 단 8:26, 단 12:4, 단 12:9, 계 1:3

(계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행복, 기쁨, 즐거움, 풍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지극한 사랑 속에 당신 제공하는 온갖 행복과 기쁨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하에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한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시면서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조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과실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에덴입니다.

에덴의 원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에덴은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도 있었고 먹으면 안되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율 의지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해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된 인간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망령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담을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이 존 밀톤(John Milton)의 서사시 '실락원(Paradise Lost)' 마지막 절입니다.

저들이 뒤돌아보아 낙원의 동쪽을 쪽 쳐다보니  
이제까지 저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는 저 불타는  
칼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고 문은 무시무시한  
얼굴과 불타는 무기로써 싸여 있는 것이다.  
저들은 절로 눈물을 흘렸지만 곧 닦는다.  
세계가 모두 저들 앞에 있었다.  
여기서 저들의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섭리를 안내자로 하도다.  
저들은 손에 손을 잡고 천천히 방향하는 걸음걸이로  
에덴을 지나 쓸쓸한 저들의 길을 간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서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었던 친근하기만 했던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박탈당한 인간은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으며 이제껏 느껴본 적이 없는 불안감과 깊은 고독감,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인생 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수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떠나보내 놓고 한시도 우리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는 혹시라도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한다고 절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밭줄을 내려 주셨습니다.

구원의 밭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의 밭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밀톤은 '복락원(Paradise Regained)'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에덴의 문을 여는 열쇠

내 일찍이 행복의 동산을 노래하였도다.

그것은 한 사람의 불복으로 인하여 잃은 것

내 이제는 노래하노니 온 인류에게 낙원을 돌이켰음을.

그는 또 한 사람의 확고한 순종에 의하여

온갖 유혹을 넘어서 충분히 시련을 받아

유혹자는 그의 모든 간계가 드러나 패하고 배척을 받아

에덴은 황막한 광야에 서게 되었도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밭줄을 붙잡은 우리가 다시 들어갈 낙원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도시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나무 잎사귀들로 치료를 하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장차 부활의 옷을 입고 누릴 영생입니다.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으므로 저주도 없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사탄과 사망이 멸망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두는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등등 좋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에서 4 개의 강이 흘러 나왔습니다.

금이 나던 하월라로 흐르던 비손 강, 구스다는 온땅을 돌렸던 기혼 강,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던  
히데겔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강과 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옥했고 자연 환경이 사람 살기에 적합했다는 것을 말  
줍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인류 4대 문명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한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인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원형적인 성소를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즉 당신이 지으신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던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또한 인간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았던 그 만물 통치권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계획하신 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에덴 사이에는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는 있지만 선악과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삶 속에서 에덴적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 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책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단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계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고도 벌써 2000 년 이상을 오시기를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고 계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벤험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벤험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벤험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벤험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벤험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난 14 일, 16 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 규모 6.5, 7.3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2011 년 규모 9.0 의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지진도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 났습니다.

지난 3 일부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규모 6,4 에서 6,9 에 이르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6 일 남미 에콰도르 태평양 해안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규모인 7,8 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이 강력한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전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구마모토 아소산과 인도네시아 시나봉 리웅 화산도 잇달아 분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녹아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